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곽호경 수석연구위원

hokyung.kwak@pwc.com

# ‘각축의 시대(The Age of Competition)’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

## 다보스 포럼 2026이 던지는 도전과 해답

### 들어가며

2026년 현재 글로벌 환경은 경제·기술·지정학·환경·사회 전반에서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얽혀 증폭되는 구조적 불안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WEF는 이러한 상황을 단일 사건이 아닌 복합 리스크의 상시화로 규정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를 충분히 조정·완충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협력과 공조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던 기존 질서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각국은 공동 대응보다는 자국의 안정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EF는 2026년을 협력 중심의 질서에서 경쟁과 각축 중심의 질서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자, 불확실성이 기본 전제가 된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한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지금, 기업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와 리스크 상호작용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WEF는 현재의 세계를  
복수의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상호 연결되며 증폭되는  
환경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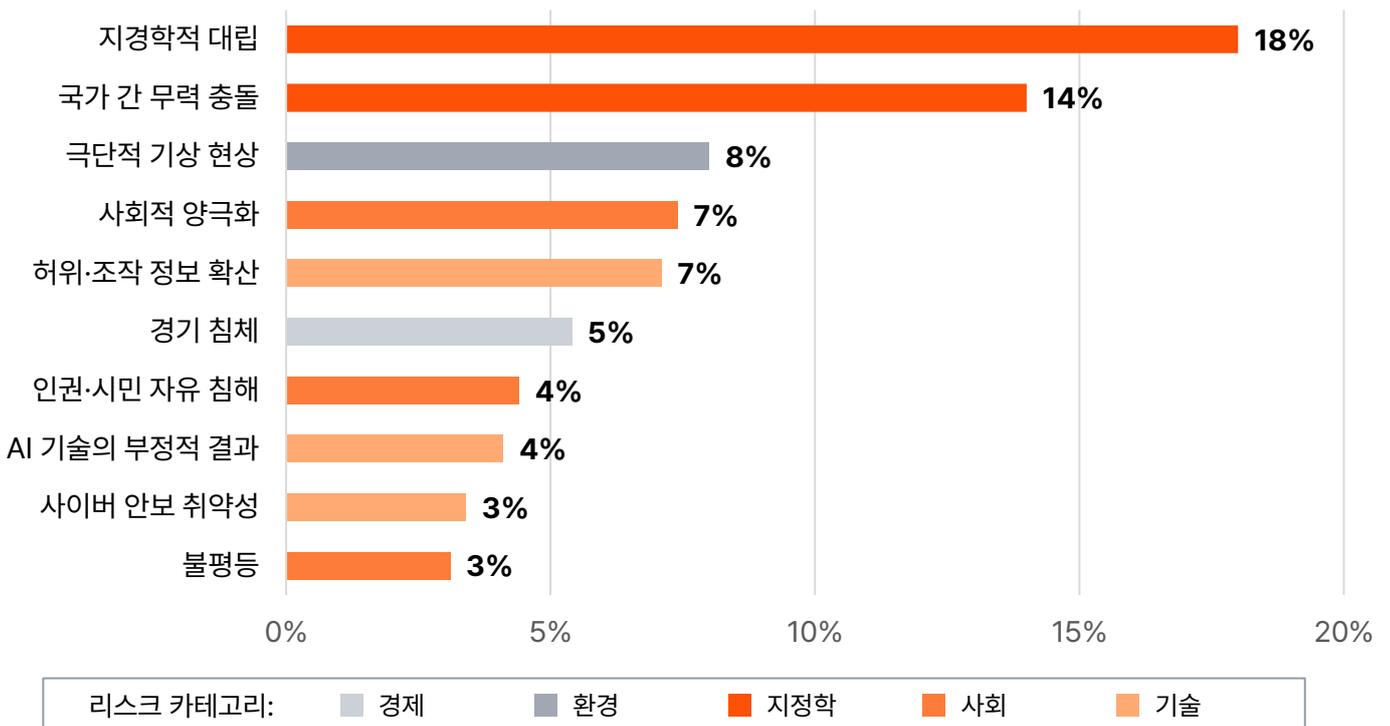
**WEF가 인식하는 2026년 현재의 세계**

WEF는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s Report 2026)를 통해 현재의 세계를 단일 위기나 일시적 불안 국면이 아닌, 복수의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며, 누적적으로 증폭되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WEF는 2026년을 협력 중심의 질서에서 경쟁과 대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분기점, 즉 '각축의 시대(The Age of Competition)'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규정한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점차 약화되고, 보호무역과 국가 중심 전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시스템 전반을 지탱해온 신뢰의 기반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WEF가 설명하는 현재의 세계는 다극화는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글로벌 협력과 공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각축적 다극 환경(Contested Multipolar Landscape)'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협력보다 경쟁과 상호 견제, 힘의 논리가 정책과 전략의 기본 작동 원리로 자리 잡게 되며, 그 결과 글로벌 안정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기 촉발 요인으로 부상한 것은 '지경학적 대립(Geoeconomic Confrontation)'이다.

**2026년도 글로벌 리스크 지형(Current Global Risk Landscape)**



자료: WEF, Global Risks Report 2026 21st Edition

주석: 상위 10개 리스크만 반영

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규모가 커지고,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며, 전개 속도까지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 중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WEF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응답자들은 2026년 올해를 기준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실질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리스크를 설문·평가한 '2026년도 글로벌 리스크 지형(Current Global Risk Landscape)'에서 '지정학적 대립'을 가장 중대한 글로벌 리스크로 지목했다(18%). 그 다음으로 '국가 간 무력 충돌(State-based Armed Conflict, 14%)'과 '극단적 기상 현상(Extreme Weather Events, 8%)'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이 더 이상 외교·안보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 전반으로 즉각 파급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하거나 지연시킬 제도적·시장적 완충 장치가 약화되면서, 경제적 충격과 금융 불안으로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다.

WEF의 문제의식에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의 위기가 특정 사건이나 정책 실패의 결과라기보다 경제·기술·지정학·환경·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불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WEF가 제시하는 핵심 전제는 리스크가 더 이상 개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WEF에 따르면 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규모(Scale)가 커지고, 상호 연결성(Interconnectedness)이 강화되며, 전개 속도(Velocity) 또한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리스크는 더 이상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기술, 지정학과 환경, 사회 전반을 가로질러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돌, 기후 재난, 기술 리스크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다뤄졌다면, 현재는 이들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하며 연쇄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예컨대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공급망 불안을 촉발하고, 이는 물가 압력과 금융 불안으로 전이되며, 다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WEF는 이러한 맥락을 '위기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위기들이 서로 얽혀 작동하는 복합위기 상황'으로 설명한다.

2026년 리포트에서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WEF는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2년 단기 전망에서 세계 정세를 '격변(Turbulent)' 또는 '전면적 위기(Stormy)'로 전망한 응답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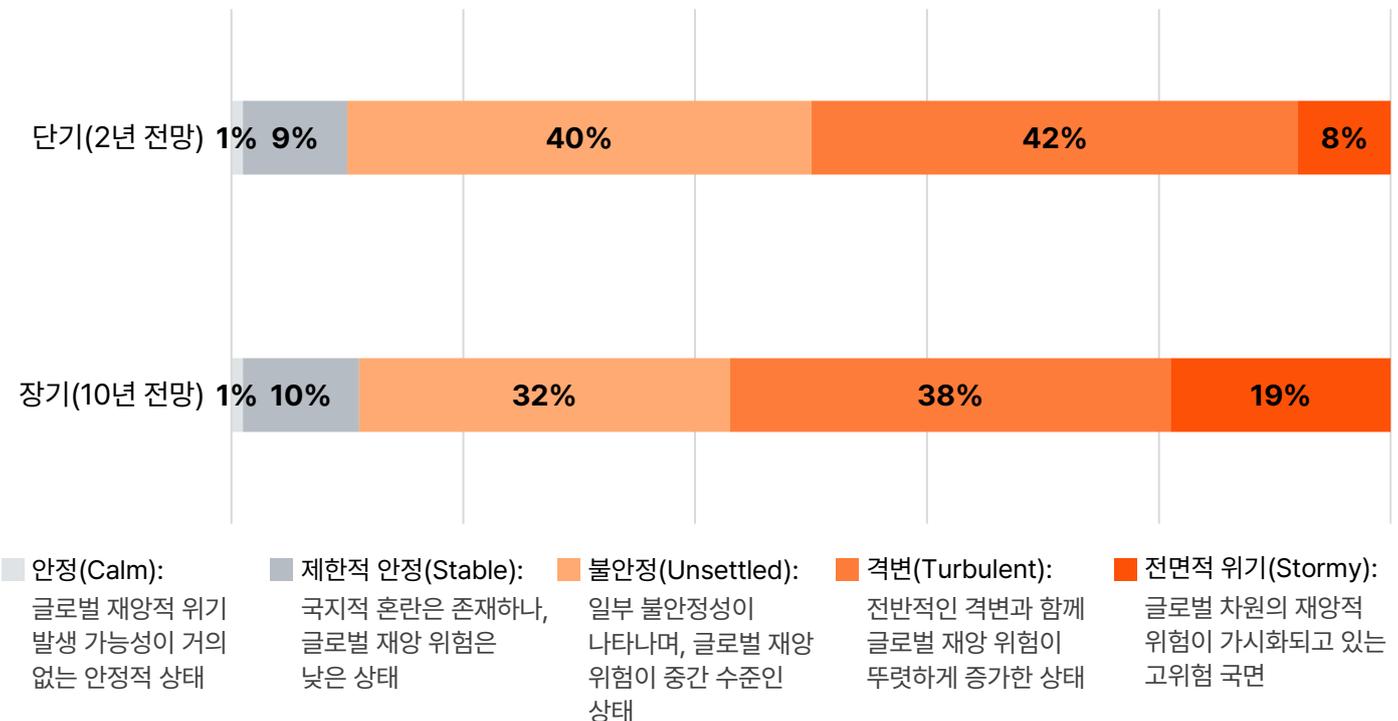
**글로벌 주요 행위자들은 현재의 불안정을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구조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

50%에 이르며, 10년 장기 전망에서는 그 비율이 57%로 더욱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안정(Calm)'에 대한 전망은 단기 및 장기 전망 모두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글로벌 주요 행위자들이 현재의 불안정을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구조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시화는 단기적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WEF는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임계 수준을 기점으로 급격한 충격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술 확산,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은 개별적으로는 완만해 보일 수 있으나,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작동할 경우 그 파장이 빠르게 확대·가속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선형적 예측이나 단계적 대응 중심의 전통적 리스크 관리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WEF는 이러한 리스크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더불어 WEF는 리스크의 관리 주체와 책임 구조가 점차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을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 장·단기 글로벌 환경 전망**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25-2026

**WEF는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리스크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

국가 간 분쟁과 대립은 한층 격화되고, 글로벌 리스크는 개별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반면,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조율할 국제 규범과 제도적 장치,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 협력 체계는 약화되거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WEF는 이러한 상황을 '다극화는 심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다자 협력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Multipolarity without Multilateralism)'로 설명한다.

그 결과 각국은 공동 대응보다는 단독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와 단기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선택적·비협력적 대응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WEF는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조정 실패와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의 축적을 전제로, WEF는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시기별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을 내다본 단기 전망에서는 '지경학적 대립'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평가되었으며, 이어서 '허위·조작 정보 확산(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과 '사회적 양극화(Societal Polarization)'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었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은 2026년 올해의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순위에 올랐으나, 단기

**장·단기별 글로벌 리스크 순위**

**단기(2년 전망)**

1	지경학적 대립
2	허위·조작 정보 확산
3	사회적 양극화
4	극단적 기상 현상
5	국가 간 무력 충돌
6	사이버 안보 취약성
7	불평등 심화
8	인권·시민 자유 침해
9	환경 오염
10	비자발적 이주·강제 인구 이동

**장기(10년 전망)**

1	극단적 기상 현상
2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붕괴
3	지구 생태·환경의 중대한 변화
4	허위·조작 정보 확산
5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
6	천연자원 부족
7	불평등 심화
8	사이버 안보 취약성
9	사회적 양극화
10	환경 오염

리스크 카테고리:	<span style="color: #ccc;">■</span> 경제	<span style="color: #888;">■</span> 환경	<span style="color: #f44;">■</span> 지정학	<span style="color: #f7941d;">■</span> 사회	<span style="color: #f9a825;">■</span> 기술
-----------	--	--	---	---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25-2026

**WEF는 '불확실성이  
상시적인 기본 조건'이  
되었으며, 국제 질서의 작동  
방식도 경쟁과 각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인식**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 전망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리스크로 분류되었다.

2036년까지 향후 10년을 내다본 장기 전망에서는 '극단적 기상 현상(Extreme Weather Events)'과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붕괴(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 그리고 '지구 생태·환경의 중대한 변화(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가 가장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기별 구분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WEF의 시각에서 볼 때, 2026년 전 세계의 '불확실성은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인 기본 조건'이 되었으며, 국제 질서의 작동 방식도 협력보다는 경쟁·각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리스크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완충할 글로벌 거버넌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기업 전략, 금융시장의 판단은 더 이상 안정을 전제로 할 수 없으며, '지속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기본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WEF가 인식하는 2026년 세계의 현실이다.

**불확실성 下, 기업 전략의  
속도와 방향, 판단 기준  
전반을 재구성하는 경영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

## 시사점: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시대의 기업 전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WEF가 제시하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 대한 핵심은 위기와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특정 위기에 대비하는 접근을 넘어, 상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판단하고 적응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는 개별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과 전략적 사고 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전략의 주요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복합 리스크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기업 전략의 다층화

첫째, 기업은 다양한 상황과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전략을 다층적으로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WEF가 전제하는 복합 리스크 환경은 경제·기술·지정학 및 규제 환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비용 최적화 중심의 판단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 지역별 규제 환경 변화 및 통상·산업 정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투자 전략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요구한다.

### 2 기술 전략, 최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핵심 경영 판단으로 재정의

둘째,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WEF 담론에서 기술은 성장의 해법인 동시에 규제 책임, 사회적 영향, 평판 리스크가 함께 수반되는 복합 리스크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이는 기업이 기술을 단순한 경쟁 우위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윤리 및 사회적 수용성까지 아우르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술 도입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귀속,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와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술일수록, 사후적 대응이나 실무 부서 차원의 관리만으로는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술 전략은 최고경영진이 주도하는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아래, 기술 활용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핵심 경영 판단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 3 글로벌 질서의 변화·재편을 반영한 기업 전략 재설계

셋째, 기업 전략은 개별 산업이나 단기적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정학적 변화와 국제적 규범의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글로벌 환경은 규제, 기술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맞물리며 그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질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재설정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글로벌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일부 기업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사업 환경을 규정하는 정책 방향과 국제 질서 변화가 기업의 선택과 행동에 어떤 제약과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 4 조직 운영의 중심축을 변화 감지·조정·회복 역량으로 전환

넷째,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안정적 환경에서는 사업 확장과 운영 효율, 자본력, 실행력 등이 조직 경쟁력의 주요 척도로 작용한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환경에서는,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보다 변화에 대한 감지와 조정 능력, 그리고 충격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변화에 대한 빠른 학습 능력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과 자원 배분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내부 조정 역량도 요구된다. 복합 리스크 시대의 경쟁력은 규모나 자본력에 있지 않으며, 변화에 대한 감지와 판단 및 조정이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불확실성 시대, 기업 경쟁력의 재정의

#### 예측력이 아니라 '판단 기준'

- 불확실성 환경에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요인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일관된 판단 기준의 부재임
-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
- 명확한 판단 기준이 구축될 때에만, 조직은 정보 과잉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음

#### 계획보다 '적응 능력'

- 단일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교한 계획은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지속 가능성이 급격히 저하됨
- 불확실성 시대의 전략적 우위는 계획의 완성도가 아니라,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속도와 유연성에서 도출됨
- 기업 전략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동적 관리 과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효율성보다 '회복력'

- 효율성 중심 구조는 안정기에는 경쟁력이 될 수 있으나, 외부 충격 발생 시 구조적 취약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는 위기를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조직을 재정렬할 수 있는 회복력임
- 이는 재무 구조, 공급망,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완충 여지를 확보하는 구조적 설계의 문제와 직결됨

#### 정보보다 '해석력'

-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기업 간 경쟁력 차이는 환경 변화 속 무엇이 구조적으로 중요해지고, 어떤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지를 선별해내는 판단 능력에서 형성
- 기업의 핵심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역량 부족에 있음
- 정보는 구조적 변화의 본질과 잠재적 리스크를 드러내는 해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영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음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구조적 전환기 속, 기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과 적응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현재는 기존의 질서가 점차 해체되고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어제까지 유효하던 판단 기준과 대응 방식이 오늘의 환경에서는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기본 전제가 된 현 상황에서 기업 전략의 속도와 방향, 판단 기준 전반을 재구성하는 경영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단기적 성과 중심의 판단을 넘어, 장기적인 생존과 적응 능력을 중심에 두는 관점의 전환이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 [Appendix] WEF는 어떤 조직인가?

World Economic Forum(WEF)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로 인해 흔히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그러나 WEF의 성격과 역할은 연차총회라는 단일 행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단순한 국제회의의 주최 기관이나 학술·정책 연구기관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WEF는 개별 정책이나 구체적인 해법을 직접 결정·제시하는 조직은 아니다. 대신 글로벌 정책, 경제, 기술 환경 등 전반에서 세계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이슈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WEF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의 핵심은 합의된 결론이나 일치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있지 않다. 대신, 글로벌 행위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문제 인식과 사고의 틀(Common Framing of the Problem)'을 형성하는 데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해법이나 정책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어떤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암묵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암묵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WEF가 공식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강제력 있는 합의문 등을 통해 방향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문제 인식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WEF는 정부, 기업, 금융,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한 주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글로벌 정책·경제 환경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핵심 어젠다(Agenda)를 형성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WEF는 국제기구처럼 공식적 권한을 행사하지도,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지만, WEF에서 형성된 공통된 문제 인식은 각국 정부의 정책, 규제 프레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금융시장의 리스크 인식 등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 WEF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재단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연차총회 외에도 연중 다수의 지역 포럼, 산업별 협의체, 미래기술·정책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협업 이니셔티브를 운영한다. 공통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WEF의 논의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WEF가 제시하는 관점과 의제들이 각국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과정은 WEF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구조적 전환,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정책·전략 논의가 글로벌 정책 및 산업 담론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다.

흔히 다보스 포럼이 WEF 활동의 핵심으로 인식되지만, 이는 조직의 활동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에 가까우며, WEF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연중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다양한 논의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WEF를 이해한다는 것은 특정 정책이나 개별 이슈를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경제 주요 의사결정 주체들이 공유하는 인식의 틀과 판단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틀과 기준이 각국의 정책 결정과 시장 판단에 반복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WEF는 공식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질서와 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